

한국타이어, 글로벌 매출액 8위

타이어비즈니스, 금호타이어는 12위 ... 브리지스톤 1위 확고부동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타이어 순위에서 각각 8위와 1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비즈니스(Tire Business)가 조사한 글로벌 타이어기업 순위에 따르면, 2010년 세계 타이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약 20% 성장해 15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타이어는 2010년 매출이 약 20% 증가한 45억1300만달러로 글로벌 순위에서 연속 8위에 올랐다.

금호타이어는 30% 성장한 30억2500만달러로 2009년 1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브리지스톤(1위), 스미토모(6위), 요코하마(7위)에 이어 4위, 금호타이어는 항저우타이어(11위)에 이어 6위에 각각 랭크됐다.

금호타이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글로벌 순위 10위를 차지했었다.

브리지스톤타이어가 240억달러 이상의 매출로 2008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지켰고 미쉐린, 굿이어, 콘티넨탈, 피렐리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매출 10억달러 클럽(매출이 10억달러가 넘는 타이어기업)에 가입한 곳은 2009년 19사에서 2010년 25사로 증가했다.

타이어비즈니스는 “2010년 세계 타이어 시장의 매출 증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와 함께 타이어 가격 인상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6>